

한라시론



김용성 시인·번역가·교사

요즘 책을 읽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 온라인수업이 늘어나고 아이가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이나 게임과 달리 책은 한참 읽어야 묘미를 찾을 수 있다. '재미' 관점에서 보면 책은 스마트폰이나 게임과 경쟁이 안 될지 모른다.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게

'책을 읽으면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하는 아이가 있다. 컴퓨터 게임을 할 때와 책을 읽을 때 뇌에 불이 들어오는 영역은 각각 다르다.

두뇌 에너지를 쓰는 정도가 다르다 보니, 책을 읽으면 머리 아픈 예는 머리 쓰는 연습이 될 뿐, 일종의 '두뇌 체력'이 떨어지는 아이다.

아이가 자기주도학습을 못하고 주위의 산만한 경우, 저조한 '학습 능력'과 불성실한 '학습 습관'에서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근본 원인은 부실한 '독서 능력'이다.

독서는 취미활동 범주가 아니라 '두뇌 기초체력' 차원에서 '학습활동의 전제'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책 읽기와 교과 공부 중 어떤 게 아이가 더 힘들까? 당연히 교과 공부 부가 더 힘들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원한다면, 선행학습을 많이 하는 학원에만 의존하기보다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아이가 느끼게 하고, '독서'를 놓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텍스트를 읽는 능력이 향상된다'라는 생각은 오해다. 텍스트를 읽는 능력은 노력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사설

전세버스 기사직전인데 대책이 없으니

제주지역 전세버스업계의 어려움이 말이 아닙니다. 일부 관광업종은 휴가철이나 황금연휴 때 '반짝특수'나마 누릴 수 있습니다.

제주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10월 현재 도내 전세버스 등록 52개 업체가 보유한 1814대 중 가동률은 4.9%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전세버스업계는 지구노력에 나섰으나 막대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16-2020

년 전세버스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에 등록된 전세버스 1855대 중 1059대(57.1%)가 휴업했습니다.

제주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세버스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려 큰일입니다. 그렇다고 정부나 제주도에서 특단의 대책이 추진되는 것도 없습니다.

편집국 25시

아이돌 가수와 형평성



김도영 편집부 기자 doyoung@ihalla.com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병역 특례 논쟁이 '뜨거운 감자'다. 정치권이 앞다퉀 "국위선양을 하는 만큼 혜택을 줘야 한다"거나 활동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병역 연기를 추진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특례를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은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특례 대상인 예술·체육요원에 포함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청장이 정한 국제 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 성적 상위 2명, 전통 예술 분야의 경우 국내 대회 입상 성적 상위 1명에 든 사람이 해당한다.

특례에 반대하는 이들은 사기업의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아이돌 가수라는 직업군에게 특례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나는 공감해졌다. 예술·체육 이외의 분야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병역 의무자는 특례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공정할까?

뉴스-in

문화보다 경관에 더 집중?

이승택 이사장 행감서 못매 ○...제주문화예술기관 수장인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문화분야보다 경관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에 훈풍.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이사장이 제주도 경관위원회 회의에 궐석 참석한 점을 집중 제기.

청와대 입장 득일까, 실일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의 재판 과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이 재판에 미칠 영향에 주목.

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4·3추념식에 참석했다 고 발언한 것 등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

청와대는 당시 "이미 선거와 거리두기를 선언했다"며 "법정기념일에 대통령이 가는 것이 총선용 행보인지는 영행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일축.

재단 공모사업 부적절 논란

○...제주문화재단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작 지원' 공모를 두고 예산과 사업 추진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예술창작활동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예산의 1/3인 1억5000만원을 공개채널 영상콘텐츠 공유·유통 방안으로 도내 지상파 방송에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

일각에선 코로나 극복 사업임에도 예술가가 아닌 방송사에 예산을 지원한 점, 일잘러 아닌 공모로 진행된 점을 들어 특정사를 염두에 뒀다는 주장까지 대두.

도의회 탈권위, 혁신 '행보'를 주목한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후반기 도의장으로 취임한 좌 의장 행보가 벌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좌 의장은 13일 후반기 의장 취임 100일을 맞아 "의회의 특권 의식이나 권위를 내려놓고 찾아 가는 의정,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위해 매진해 왔다"며 "앞으로

소통'에 나섰고, 의회 내부 혁신 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7월 발족한 '도의회 의회혁신기획단'에 의해 의원 인사청탁·성희롱·사적 노무 금지, 사무처 직권 위보강의 기준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의회 혁신 제1·2·3호 조례안도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좌 의장 행보가 고유의 의정활동 소홀로 '본말전도'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의정은 집행부인 도에 대한 견제와 균형, 감시기능 강화에 적당 나설 때 더욱 빛을 냅니다.

부 고 현기학(현일약품 대표) 아버지 연주 현공 성우(前 표선면장·행년 85세)께서 서기 2020년 10월 14일 02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채권자이의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0년 10월 5일 임시조합원총회에서 놓여진 경원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4호 및 같은법 같은조 5항에 의하여 본 회사 조직의 형태를 영여조합원법에서 같은법 제19조에 의한 영여회사법인 주식회사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 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내선)전기공사 기능인양성 및 전기기사 자격취득 과정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CCTV 및 공청 설비공사